

# '2군 홈런왕-타점왕' KIA 김석환, 최형우 빈자리 채운다

‘쇄골 골절’ 최형우·‘햄스트링’ 이탈 나성범...공격력 구멍

김석환, ‘제2의 이승엽’ 불렸지만 2년 연속 제몫 못해 아쉬움

KIA 타이거즈는 지난 24일 KT 위즈와의 광주경기에서 불혹의 해결사를 잃었다. 최형우가 안타상 타구를 치고 1루에 전력질주하다 상대 1루수의 다리에 걸려 나동그라지면서 왼쪽 쇄골 골절상을 당했다. 진단명인 쇄골 분쇄골절 및 견쇄관절 손상이다. 재활까지 4개월이 소요되는 중상이었다.

타율 3할2리 17홈런 81타점을 올렸다. 타점은 팀내 1위였고 KBO리그 결승타 공동 1위(14개)를 달리고 있었다. 대체불가의 해결사였다. 19일 광주 LG전에서 2루에서 3루로 뛰다 왼쪽 햄스트링 파열상을 입고 이탈한 괴물타자 나성범에 이어 최형우마저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KIA 공격력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두 타자의 공백은 상상불가하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망연자실할 수는 없다. 남은 20경기에서 5강 진입에 도전해야 한다. 최형우와 나성범의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 두 타자의 이탈은 곧 다른 선수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새로운 히어로가 등장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일단 외야자리는 고종욱, 이창진, 이우성이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성범이 없었던 개막부터 6월 중순까지 세 선수가 번갈아가며 출전하며 공백을 메웠다. 최근 1군에 올라온 외야수 김호령과 박정우도 대수비와 대주자 등 백업요원으로 출전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형우가 빠진 지명타자 자리는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할 수 있다. 변우혁을 상황

에 따라 지명타자로 번갈아 기용이 가능하다. 유격수 박찬호가 2주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변우혁은 1루와 3루 백업, 지명타자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황대인은 2군으로 내려갔다.

여기에 또 기회를 얻은 타자가 있다. 퓨처스에서 폭격을 마치고 26일 1군에 등극하는 김석환이다. 퓨처스리그 타율 3할7리 18홈런 73타점을 올렸다. 남부리그와 북부리그를 통틀어 홈런왕과 타점왕에 올랐다. 퓨처스리그가 끝났지만 1군에 자리가 없어 풀업을 받지 못했다. 최형우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 자리에 복귀한 셈이다.

김석환은 KIA의 아픈 손가락이다. 2022시즌을 앞두고 ‘제 2의 이승엽’이라는 찬사까지 받았지만 2년 연속 제몫을 못했다. 2022시즌은 107타석을 소화하며 1할4푼9리 3홈런 7타점에 그쳤다. 올해는 16타석에 그치며 잊혀졌다. 타율 7푼1리 홈런없이 2타점에 그쳤다. 그에겐 1군 20경기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화



끈한 타격으로 KIA를 구하는 히어로가 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 계영 금메달·아시아新 합작...황선우·김우민, 다관왕 ‘시동’

韓수영 황금세대, 中 넘어설지 관심  
황선우, 자유형 200m 2관왕 도전  
김우민, 단일대회서 첫 4관왕 노려



양재훈, 이호준, 김우민, 황선우가 25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계영 800m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기를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 수영의 ‘황금세대’를 이끌고 있는 황선우(20)와 김우민(22·이상 강원도청)이 계영 800m에서 최상의 성적을 받아들이면서 다관왕에 시동을 걸었다.

황선우와 김우민은 계영 800m 영자로 나서 금메달과 아시아신기록이라는 기분좋은 결과를 냈다. 한국 수영 대표팀은 지난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아쿠아틱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수영 계영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 양재훈(25·강원도청)·이호준(22·대구광역시청)·김우민·황선우 순으로 해엄쳐 7분01초73의 아시아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한국은 완순, 판잔라 등이 버티고 있어 대항마로 여겨지던 중국을 1초67 차로 넉넉하게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계영 단체전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건 것은 사상 최초다. 이전까지는 4차례 은메달을 딴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아시안게임 남자 계영 800m에서 메달을 딴 것은 1994년 일본 히로시마 대회에서 지상준, 우철, 우원기, 방승훈이 은메달을 딴 이후 29년 만이었다.

사상 첫 금메달을 일군 기록 또한 눈부셨다. 2009년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일본이 작성한 종전 아시아기록(7분02초26)을 0.53초 단축했다.

일본이 종전 아시아신기록을 쓴 2009년은 폴리우레탄 재질의 전신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기 전이라 신기록이 쏟아지던 때다. 한국 대표팀이 당시 세워진 기록을 갈아치웠다.

아울러 올해 7월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 써낸 종전 한국기록(7분04초07)도 2개월 만에 2초34나 줄었다.

계영 800m에 나선 영자들은 병역 혜택이라는 선물도 추가로 받았다.

첫 종목이었던 자유형 100m에서 동메달을 딴 황선우는 계영 800m 금메달과 아시아신기록으로 다시 기세를 끌어올렸다.

황선우는 자유형 100m에서 자신이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세운 한국기

록(47초56) 경신과 더불어 내심 금메달까지 노렸다.

그러나 둘 다 이루지 못했다. 한국기록에 0.48초 뒤진 48초04에 레이스를 마친 황선우는 3위에 자리했다.

라이벌 판잔라가 46초97의 아시아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땀, 왕ואוו(중국)가 48초02로 은메달을 가져갔다.

계영 800m에서 아쉬움을 털 황선우는 27일 주종목인 자유형 200m에 나선다.

자유형 200m에서 황선우는 세계 최정상 급이다.

황선우는 지난해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47의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 7월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결승에서는 한국기록을 1분44초42로 단축하며 동메달을 땀다.

자유형 200m에서도 역시 판잔라가 경계 대상이다. 올해 남자 자유형 200m 기록 순위에서 황선우가 3위, 1분44초65를 기록한 판잔라가 4위다. 판잔라는 올해 5월 중국선수권대회에서 이 기록을 썼다.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는 황선우가 판잔라에 앞섰다. 판잔라는 준결승에서 1분46초05로 공동 10위에 그쳐 결승에도 오르지 못했다.

황선우가 제 기량만 발휘한다면 판잔라를 물리치고 시상대 가장 위에 설 수 있을 전망이다.

3개의 개인 종목을 남겨둔 김우민은 4관왕이라는 더 큰 꿈을 꾀다. 김우민은 26일 오후 자유형 1500m에 나서고, 28일에는 자유형 800m, 29일에는 자유형 400m에 출전한다.

자유형 400m과 800m에서는 아시아에서 뚜렷한 적수가 없다.

자유형 400m에서 김우민의 올해 최고 기록은 3분43초92로, 기록 순위 13위다. 김우민보다 앞서는 아시아 선수는 없다.

김우민이 올해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800m에서 7분47초69의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는데, 올해 아시아 선수 중 가장 빠른 기록이다.

다만 자유형 1500m에서는 페이리웨이를 넘어야 한다.

김우민의 자유형 1500m 개인 최고기록은 올해 대표 선발전에서 작성한 15분02초96이다. 페이리웨이는 올해 중국선수권에서 개인 최고기록인 14분46초59의 기록을 썼다.

김우민이 4관왕을 달성하면 한국 수영 사상 첫 단일 대회 4관왕이 된다. 역대 아시안 게임 수영에서 단일 대회 4관왕을 차지한 한국 선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3관왕도 2명뿐이다.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가 1982년 뉴델리 대회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3관왕에 등극했고, 박태환이 2006년 도하 대회,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2연속 3관왕에 올랐다.

28보다 0.51초 늦게 레이스를 마쳤다. 경기를 마친 박미성은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믹스드존을 지나갔다.

박미성은 28일 자유형 50m, 29일 접영 50m에 나선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다. 이로 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31일 징계가 해제되면서 다시 국제 무대로 돌아왔다.

## 400SV 앞둔 오승환·139SV 고우석 KBO 통산 ‘1만 세이브’ 주인공 누구?

4세이브 추가하면 1만 세이브 달성  
삼성 1374세이브로 10개 구단 최다



오승환

KBO리그 통산 1만 세이브 달성이 눈앞에 다가왔다. 1만 세이브를 기록할 투수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현재 리그 통산 세이브 숫자는 9996개로 4개를 더 기록하면 팀 통산 1만 세이브를 달성하게 된다”고 전했다.

10개 구단 중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1374개로 가장 많은 세이브를 수확했다.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 팀 전체 세이브의 30%에 육박하는 394세이브를 기록했다.

오승환은 2006년 47세이브를 거두면서 KBO 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세이브를 달성하기도 했다. 앞으로 6개만 추가하면 KBO리그 통산 400세이브 금자탑을 세운다.

삼성의 뒤를 이어 LG 트윈스가 1278세이브를 따냈고, 두산 베어스는 1209개를 적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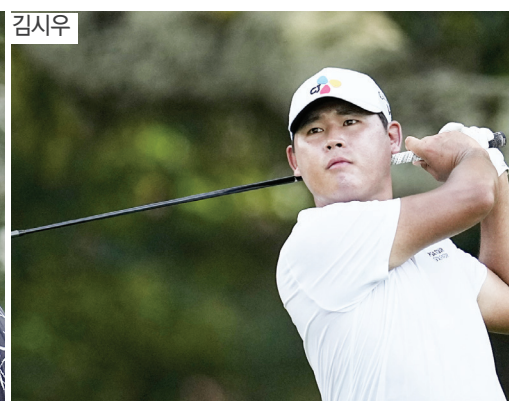
LG는 원플랜맨으로 활약하며 227개의 세이브를 쌓았던 김용수와 7시즌 만에 139세이브를 기록한 고우석 등 KBO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들을 배출했다.

이 밖에도 통산 271세이브를 수확한 손승락, 선발과 마무리를 오가면서도 258세이브를 따낸 임창용, 7시즌 연속 20세이브를 달성한 구대성 등 명성을 떨쳤던 투수들이 팀의 뒷문을 지켰다.

통산 100세이브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투수는 21명이고, 이 중 현역 선수는 오승환과 정우람 등 7명이다.



임성재



김시우

## 한국 골프 임성재·김시우, 9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빛 스윙’ 도전나서

내일부터 나흘간 진행...한국 선수끼리 금메달 경쟁 유력

한국 골프가 9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빛 스윙’에 도전한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골프는 28일부터 나흘간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서호 국제골프 코스에서 남녀부 경기가 치러진다.

이번 항저우 대회는 프로 선수들의 출전이 가능해져 더 큰 관심을 끈다.

남자부에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임성재, 김시우가 출전하고, 여자부에선 세계랭킹 2위 인뤄닝(중국)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한국은 남자부에 임성재, 김시우와 함께 아마추어 조우영, 장우빈이 나선다. 여자부는 여고생 아마추어 임지우, 유현조와 KPGA 김민솔이 출전한다.

25일 항저우에 도착한 한국 선수들은 28일부터 1라운드를 시작한다.

남자부는 세계랭킹 27위 임성재, 40위 임시우의 금메달 경쟁이 유력하다. 이들 다음 순위가 인도의 아니르반 라히리(148위) 정도다.

그러나 박미성은 금물이다. 라히리는 지난 25

일 끝난 LIV 골프 대회에서 브라이슨 디셔보(미국)에 이어 준우승에 오르는데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유럽투어 통산 4승을 보유한 중국의 우아순도 홈 이점을 안고 있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지난 2020 도쿄올림픽 때는 자신의 캐디를 동반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회는 조직위원회가 선발한 캐디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

여자부는 개최국 중국 선수들의 기량이 압도적이다.

인뤄닝을 비롯해 세계 랭킹 13위 린시위와 올해 4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류위가 있다.

한국 골프는 직전 대회인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남자 개인전 은메달(오승택), 남자 단체전 동메달, 여자 단체전 은메달을 땀다.

아시안게임 마지막 금메달은 2014 인천 대회 때 여자 개인전 박결이다.

## 북한 수영, 4년 만에 국제무대 복귀...박미성, 예선 탈락

북한 수영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4년 만에 국제 무대로 돌아왔다.

북한 박미성은 26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아쿠아틱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자유형 100m 예선에서 58초79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29명 중 18위에 머물러 진출은 좌절됐다.

메달 도전은 무산됐지만 이날 박미성이 물

살을 가른 것만으로도 북한 수영에는 의미가 있다.

북한 수영 대표팀이 국제대회에 나선 건 2019년 10월 중국 우한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선수권대회 이후 4년 만이다.

박미성은 당시 대회 여자 자유형 50m에서 26초31로 북한 기록을 작성했다.

이날 박미성은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인 58

초28보다 0.51초 늦게 레이스를 마쳤다. 경기를 마친 박미성은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믹스드존을 지나갔다.

박미성은 28일 자유형 50m, 29일 접영 50m에 나선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다. 이로 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31일 징계가 해제되면서 다시 국제 무대로 돌아왔다.